

여호수아(25) 레위인의 성읍

■ 본문

수 21:1-6

■ 시작 찬송가

213장(통 348장)

■ 헌금 찬송가

435장(통 492장)

▶ 레위 지파의 48개의 성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은 48개로 아론 자손 13 성읍, 그핫 자손 10 성읍, 게르손 자손 13 성읍, 므라리 자손 12 성읍을 분배받았다.

(여호수아 21:1-42)

레위인의 사명 레위인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각 지파로부터 얻은 48개의 성읍으로 흠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도록 배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흠으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복음을 보존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이어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레위인의 성읍

열두 지파 중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를 위해 준비한 재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살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규모가 커지면서 재물로만 먹고살 수 없게 되어 살아야 하는 방식으로 성읍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가 자원해서 땅을 내놓도록 하였고 이들이 내놓은 48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1) 흠어진 성읍들

레위인들이 받은 48개의 성읍은 이스라엘 전역 곳곳에 흠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흠으시고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전략적으로 배치하셨습니다.

수 21:2-3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라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레위 자손들은 그핫, 게르손, 므라리 사람들로 48개의 성읍으로 흠어져서 레위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갑니다. 아론은 그핫 족속의 사람으로 아론의 직계 자손만이 이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족속입니다. 그핫 자손은 성전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핫 자손은 열세 성읍을 받았는데 그들이 받은 성읍의 위치는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남 유다 즉,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 아론의 자손들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수 21:41-42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마다 그러하였더라

수 21:4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시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2) 레위인의 저주와 회복

레위 지파가 흠어진 것은 야곱의 저주와 관계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우리의 상상과는 다르게 잔혹한 성격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겔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디나와 혼인하기 원하는 세겔에게 할례를 조건으로 내겁니다. 그러나 디나의 일로 분노가 풀리지 않았던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이 할례받고 아파할 때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이 잔혹한 복수로 인해 야곱은 마지막 유언에서 그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중에 흠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 34:25 제삼 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흠어지는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흠어짐을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시므온은 유다와 베냐민과 함께 남 유다에 속하여 은혜의 대열에 서게 되었고 레위는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저주받아 망하게 되어 흠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흠어짐을 통해 사명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어 이스라엘 땅에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주의 상황에서도 회복해 주시며 그 저주가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십니다.

(3) 죄인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아론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처음 섬긴 사람입니다. 아론은 실수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다른 신을 만드는 중대한 실수를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체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서 부족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 주십니다.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을 세워서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 사람, 가장 더러운 사람, 데려다 쓸 수 없는 사람을 세우셔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출 28:1-2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 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나님은 아론을 용서하시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에게 수송아지를 가져와 제사하며 회개하며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으며 위대하십니다. 아론처럼 우상숭배하며 레위처럼 칼을 휘두르고 분노와 폭력을 행사하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하고 지키는 사람들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들어서 쓰시며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출 28:3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레위인의 구별과 헌신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성전을 지키고 제사하는 특별한 일에 구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헌신하며 삶을 바치고 성전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깨어있는 것이 이들의 사명입니다.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자신이 빛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빛나시게 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우리는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레위인들이 사는 길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레위인들이 이 사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것은 예배를 지키는 것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우신 참 목적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되고 헌신 된 레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레위인처럼 구별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공동
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

▶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

제사장들은 타락하여 더러운 떡과 병든 양으로 제사하여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며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말라기 1장 6-14)